

창세기(5)

창세기 1 장 26 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어요. 인격의 완전한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6 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형상은 인격을 말씀하는 것이고 모습은 보이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세 분 아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속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그 깊은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아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 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분명히 세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 장 9 절에도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이 구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 장 12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참 좌우에 날이 있는 칼 같아서 영과 혼을 찢러 가르고 골수와 관절까지 찢러 가르다고 했습니다. 골수와 관절은 육신 아납니까? 영과 혼을 먼저 찢른 다음 골수와 관절까지도 찢러 쪼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사람도 하나님처럼 셋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상한 것은 칼빈 선생이나 핫지나 메이첸 뿔콕같은 이러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왜 2 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2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갔을 때도 이 영과 몸과 혼에 대해 전도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전에 벌써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이분설을 얘기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혼과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지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야 하지 이것이 옛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근거가 되거나, 내 느낌라든지 심지어 정신병의사의 말이 근거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을 믿고 내 느낌을 믿고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믿는 게 믿음이 되어버렸고, 또 자신을 믿는 신념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 한국말에도 몸이란 말이 있고 영이란 말이 있고 혼이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쏘마’라는 말이 있고 ‘퓨쉬케’라는 말이 있고 ‘퓨뉴마’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바살, 네페쉬 그 다음에 라후’ 즉 ‘몸, 혼, 영’ 이렇게 세 가지 말로 분명히 되어 있고, 스페인어에도 보면 몸은 꾸에르보, 혼은 알마, 영은 이쓰빠루뜨, 이렇게 분명히 세 가지 말이 존재하는 자체만 보아도 셋이 있는 것이 맞지, 둘만 있다면 어떻게 세 가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아서 영, 혼, 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영혼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 것처럼 우리도 몸과 영과 혼이 하나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 엘리아가 사대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위에 누워서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혼이 몸에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혼이 떠나가면 죽은 것이다. 혼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 보면 사람들을 셀 때 한 사람 두 사람이라 하지 않고 한 혼 두 혼 이렇게 세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해서 완전히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혼이 육신과 딱 달라붙어 함께 죄를 지어서 결국 육신과 함께 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들어 비유하자면 바로 타이어 같은 것인데 타이어 속에 튜브가 있고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간 것이다. 바람은 영과 같은 것이고 튜브는 바로 우리의 혼과 같은 것이고, 육신은 겉에 있는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목 베임을 받은 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혼들이 똑같이 입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 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나중에 그 둘이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 속에 빠졌는데, 분명히 육신은 다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그 혼이 말하기도 하고 자기 혀에다 물을 찍어 달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혼은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지금은 90 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26 살 때 갑자기 집이 무너져 아차 죽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있더라요. 그래서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까? 하고 옆을 보니 자기 시체는 피가 나 죽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85세인가 86세이셨으니까 굉장히 건강한 권사님이셨어요. 젊으셨을 때는 전도사님이셨고 나중에 연세 들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장례식에서 들은 적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식들의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는 자식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막 울면서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려고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저렇지 하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혼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본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에 따른다면 우리 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이도록 육안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영은 성령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하고 죄 없을 때에는 아들로써,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아담은 신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덴동산에서 그러니까 모든 맹수들까지 아담에게 복종했던 에덴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과 같이 무덤에 가며 지옥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으로 해석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성경들이 다 영과 혼을 모두 '영혼' 하나로 해버리므로 이분으로 해석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은 죽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영이 거듭날 때 즉 거듭나는 것은 영이고 구원받는 것은 혼이며, 우리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을 죄의 몸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가서 썩어야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그때 살아 있으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 몸도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고행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며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오리겐이란 신학자 같은 사람은 자기 몸의 남성을 거세까지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야 한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자기 몸을 거세함으로 학대했습니다. 거세를 한다고 몸의 정욕이 절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육신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 무덤에서 썩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18절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고통 받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육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비통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육신은 선한 것이 없다. 결국 죄 덩어리이다.

그런데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나쁘다고 했는데 육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면 육신이 깨끗하다면 왜 육신이 썩습니까?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육신 자체가 이미 죄로 가득 찬 것을 모르고, 육신은 깨끗하다 그러나 역사하는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은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영은 죽었으며 몸은 무덤에 가서 썩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야 합니다. 모든 원인이 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셨다고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 장 42 절을 보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몸은 이미 썩었고 이빨도 다 빠졌는데 어떻게 울며 이를 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혼은 이빨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모든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 혼과 몸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죄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아직까지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지 않고서는 벌레처럼 지옥에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육신도 주님 오시는 산 소망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지만 그러나 영광 혼을 내적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7 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두개골 같은 것을 보이면서 이것이 누구 것이다 몇 억 만 년 전의 것이다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왜냐하면 이들 진화는 해파리 같은

단세포동물들 복세포가 아니라 단세포들로부터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성은 단세포를 아무리 조작을 하고 열을 가하고 해도 거기서 남성 여성이라는 성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이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것들, 예를 들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간단히 보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포가 창조되기 전’이라고 하며 이 사람들도 ‘창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포가 있어야 하니까. 뭐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진화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어쩌면 수십 억 년 전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여러 번에 걸쳐 실험과 실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있었다’가 아니라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요. “어쩌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원형질 분자들이 중간적 형태로부터 발생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분자들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 스스로 번식을 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 짓는 경계선 근방에까지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들이 최초로…… 어찌고저찌고”. 전부 추측이에요. 소위 학문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얘깁니까? ‘무엇이다’라고 증거를 대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허황된 상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과학이라는 것이 이래요. 차라리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그런 식이라면 “이 창조는 아마 하나님이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쪽 뺏어요. “아마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내용이 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스스로 언급하면서도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아무도 꿈작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의 체계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네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거역함으로써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혼이 이미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의 몸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죽지 않는 몸으로 입을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죄의 용서 모든 죄를 제거하는 복음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몸도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활하는 회복됨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 장 22 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창조물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닌데. 또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즉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양자는 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이 완전한 양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게 뭔가 하면, 썩을 몸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것, 우리의 영과 혼이 빠져 나와서 새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양자가 완전히 되는 시점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양자로 입적만 되어 있습니다. 입적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는 양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처럼 우리를 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완전히 변화하게 되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들은 마귀와 같은 빨간 용의 벌레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자되는 산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이 성경 66 권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낙심치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천하 만물이 말씀에 붙들려 잘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만을 믿으며 소망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